

# ‘금어’ 만봉 스님 불화 한 자리에

## 만봉불화박물관 강원도 영월 망경산사에서 기공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있었던 만봉 스님(1910~2006)의 불화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된다. 올 7월 법인설립을 마친 재단법인 만봉불교문화원(이사장 이용국)은 9월 27일 강원도 영월 망경산사에서 만봉불화박물관(관장 최복숙)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 종회의장 인공 스님,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 육천 법음대 학장 일운 스님, 이광재(전 주당)국회의원, 고진국·권석주 강원도의회의원, 이우식 강원도 환경관광국장, 박선규 영월군수, 박용석 부군수, 장경태 영월군회의의장, 김경득 영월경찰서장, 구진열 영월세무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법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사람이나 어떤 일에 있어 천운과 지운 인운 등 세가지 운이 매우 중요하네, 만봉불화박물관은 이 세 가지 운을 잘 갖추어서 좋은 도량에 그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라며 “만봉 큰스님의 유자들이 후대에 길이길이 전해지고 후학

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지 6994㎡에 연건평 1588㎡ 규모로 지어질 만봉불화박물관은 전 시설과 교육실 수장고 등으로 이뤄진다. 만봉불교문화원은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한 만봉 스님의 불화 235점을 확보한 상태다. 만봉 스님은 6세 때부터 불화를 그리기 시작해 26세에 ‘금어’로 인정받았으며 일생동안 불화에 매진한 기념비적 인물이다. 따라서 만봉 스님의 작품이 한 자리에 상설전시 필요로 불화 연구와 교육 및 전승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만봉불교문화원 이용국 이사장은 “만봉 큰스님의 전통불화 및 단청의 맥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복숙 관장은 “서양문물의 무절제한 유입으로 이 나라 전통문화의 맥이 끊어지거나 희석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뜻 있는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그 맥을 잇고자 한다”고 밝혔다. 만봉불화박물관은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임연태 기자



만봉불화박물관(관·조감도) 기공법회에서 사십하는 불교계 및 지역 인사들.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 <13> 원효종 정법 대종사

법흥 대종사는 한일불교문화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다. 1915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10세에 조모를 따라 서울에 왔다가 박한영 큰스님에게 한문을 배우고, 14세에 유점사 운악 스님에게 득도하였다. 17세에 건봉사, 법주사 강원에서 일우 스님 강의를 듣고 유점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24세에 일본에 들어가 정토종 영안사, 천태종 불학원에서 공부하고, 일장대학·연변불교전문화교에서 율학을 전공, 천태종 권율사가 된 뒤 자하연 존승암 주지가 되었다.

8·15 해방과 함께 조국에 돌아와 만해 스님과 불교호국단을 조직하고, 광주 봉은사 총무, 해인사 원주로 있으면서 효봉·청

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가마쿠라시대부터 원효·의상 스님을 고산사에 명신(明神)으로 모시고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일본에 가서 보니 1968년 스님 나이 52세 때 100일 회봉에 도전하여 외국 사람으로서의 최초인 동시에, 가장 많은 나이로 수행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국보대접을 하였다.

우리는 스님께서 100일 회봉을 시작한 동산부터 1km 간격으로 떨어진 변천당, 명왕당, 호마당, 대승원 등 252군데를 들렀는데, 차로 다니는 시간만도 4시간이 걸렸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32km의 머나먼 산길을 100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3일 동안 단식하고 부화(不坐)·불와(不臥)하는 고행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수계법회를 하실 때는 증계설계사리가 되어 수천 수만의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었다. 스님께서 제안하여 9박10일동안 인도성지를 갔을 때는 스님이 일생 동안 지낸 일들을 상세히 들려주시고, 또 버스 안에서 일본 말과 한국말로 된 불교의식을 빠짐없이 육성으로 들려주어 오늘 이 글을 쓰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스님께서 마지막 여행시에 제안하셨다.

“한 법을 가지고 100구의 시를 짓는데, 이 차가 스톱하기 전까지 결판을 내기로 하자” 하시어, 한 시간 동안에 100구의 시를 지은 일도 있다.

원효 대사의 <십문화쟁문>을, “삼승일승화쟁문(三乘一乘和諍門) 공유이집화쟁문(空有異執和諍門) 불성유무화쟁문(佛性有無和諍門) 인법이집화쟁문(人法異執和諍門) 삼성이의화쟁문(三性異義和諍門) 오성성불화쟁문(五性成佛和諍門) 이장이의화쟁문(二障異義和諍門) 열반이의화쟁문(涅槃異義和諍門) 불성이의화쟁문(佛性異義和諍門) 하고 외우면, “그래, 그래.” 하시면서 당시 당시 춤을 추시고, “이 세상 모든 분별과 시비는 진·망(眞妄), 염·정(染淨), 공·유(空有), 인·법(人法) 속에서 일어난 파도요 거품이지. 깨달고 보면 모두가 일심(一心)·일법(一法)·일리(一理) 인 것을...”이라고 하셨다.

### 효봉 스님 등과 천일묵언...日서는 '100일 회봉' 마쳐 한국전쟁때 8만대장경 수호하는데 공세워 훈장받아 '원효 성전' 편찬해 일본불교와 밀접한 관계 맺어

답 스님과 함께 묵언수행을 1000 일 동안 하고, 6·25한국전쟁 때는 8만대장경을 수호하는데 큰 공을 세운 대한민국문화훈장을 받는다.

스님은 통영 용화사 도솔암 선방에서 하안거를 마치고, 서울 선학원에서 불교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구례 화엄사 석봉 스님의 소개로 부산 금수사 주지가 되었다.

경내지 산림을 확보하고 본전·신도회관과 종·누각을 짓고 조사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민영환·이준·안중근 열사를 봉안하고 봉은재를 올린 것이 남북통일·세계평화기원도량으로 지정되어 호국사찰로 성장하였다.

1963년 정법의 흥륜을 위해 대한불교진흥회를 창설하고, <원효 성전>을 편찬 일본불교와 밀접

스님은 1971년 한국의 목담 대울사에게서 율맥을 전승하여 다시 목담 스님의 손상좌 수진 스님에게 전하였다.

스님은 부지런하시고, 또 기억력이 좋아 국내 큰스님들의 제사나 생일을 잊지 않고 직접 찾아 공양하였고, 무슨 일이든지 불교계에 큰 일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특히 덕암·석주 스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였으며, 서울에 오시면 으레 모시고 공양하였다.

또한 스님은 정통 밀교의식에 법패까지 겸하여 대·소 의식에 모르는 것이 없었으므로 모든 의식자들이 증명법사로 모시고 자문하였고, 사람이 없을 때는 직접 의식에 동참하여 모여 있는 신도들에게 환희심을 불러일으켰다.

상락향수도원에서 세 번 국제

인법이집화쟁문(人法異執和諍門) 삼성이의화쟁문(三性異義和諍門) 오성성불화쟁문(五性成佛和諍門) 이장이의화쟁문(二障異義和諍門) 열반이의화쟁문(涅槃異義和諍門) 불성이의화쟁문(佛性異義和諍門) 하고 외우면, “그래, 그래.” 하시면서 당시 당시 춤을 추시고,

“이 세상 모든 분별과 시비는 진·망(眞妄), 염·정(染淨), 공·유(空有), 인·법(人法) 속에서 일어난 파도요 거품이지. 깨달고 보면 모두가 일심(一心)·일법(一法)·일리(一理) 인 것을...”이라고 하셨다.

“그래, 그래.” 하시면서 당시 당시 춤을 추시고, “이 세상 모든 분별과 시비는 진·망(眞妄), 염·정(染淨), 공·유(空有), 인·법(人法) 속에서 일어난 파도요 거품이지. 깨달고 보면 모두가 일심(一心)·일법(一法)·일리(一理) 인 것을...”이라고 하셨다.

# 해인사 마을불자회·불교청년회 창립

## 절과 사하촌의 상생·나눔의 장 마련

에나 지금이나 절과 사하촌과의 관계는 그리 매끄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사하촌이 오히려 신심이 약한 것도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해인사가 마을불자회와 불교청년회를 창립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0월 1일 오후 3시 보경당에서 합천군 가야면내 마을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마을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오늘 창립법회는 해인사와 마을이 상생과 나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함께하는 삶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다지고 해인사 신행단체

로서 신심과 원력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불자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인사마을불자회 최미석(관도심) 총무는 “마을의 화합을 위해 초대회장은 해인사 부처님으로 모셨다”면서 “마을부녀회(회장 배법진)를 중심으로 주민들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마을불자회는 마을버스도 불자들이 해인사로 이동시키고 매달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봄·가을 성지순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동·리 단위로 법당장을 정해서 불자들을 관리하고 독거노인 반찬배달,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 등 지역



해인사 마을불자회가 10월 1일 보경당에서 창립됐다. 앞줄 가운데가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사진=손병현 대구지서장

사회를 선도하는 신행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해인사는 같은 날 오후 7시 보경당에서 해인사 불교청년회 창립회도 봉행했다. 청년회는 각 마

을의 일반청년회의 불교청년회 가입을 유도해 재난구조 및 소외이웃 돕기, 마을행사 지원등의 실질적인 봉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우 기자

# 실상세계實相世界 영靈의 본체本體를 일깨워주신 부천님! 아 아! 우리 父天任!

1. 모든 종교宗敎의 궁극은 하나<一>이다. 왜냐하면 종교宗敎란 모름지기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가장 으뜸 되는 가르침이어야만 함과 동시에, 모든 삼라만상의 참된 존재存在 가치의 이유와 그 명제命題에 대한 명쾌하고도 확고한 답답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이러한 근본根本을 망각하거나 또는 아예 모르는 채, 그 제도制度와 방식方式에만 매달리거나 혹은 그 제도와 방식을 제 아무리 새롭게 창조하고 고치고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만족滿足과 완성完成은 향유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시비是非는 끝내 시시비비로서 가려지지 않게 마련인 까닭이다.

3. 유냐? 무냐? 선불이나 악불이나, 물질物質이나 정신精神이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누구나 다 심증心證 체달體達하고 보면, 이 대우주 법계의 실상세계는 하나<一>로서 통화統和되어 지극히 평온한 것임을 분명 체감體感할 수 있고 오득悟得할 수가 있음이니, 진실로 말과 글이 끊어진 경지

4. 부연하자면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영靈의 세계世界 영靈의 실제實體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렇듯 영靈의 근원根源은 맑고 고요하여 옛날과 지금이 없으며 <時間조월>, 요묘한 그 본체는 둥글고 밝지만 하여 생생과 사사에도 물들지 않나니 <空間초월>, 선승도 악행도 존재할 수 없음이라. 현대 여기 어찌 성령聖靈이나 악령惡靈이나 운운 한다는 말일까? 기실 땅이 있으니 허공虛空도 있고 하늘세계도 있으니 그 하늘세계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불멸의 실재實在이 아니며, <月天, 日天, 利天, 夜摩天, 도솔천, 化樂天, 大梵天, 光音天, 遍淨天, 廣果天,

大自在天>- 비록 이러한 여러 하늘의 하느님이나 그 하늘의 주인이라 일컫는 천주님天主任이라 할지라도 만물의 근원인 영靈의 본체 즉 법신法身은 아니니, 그 법신法身의 실체를 오직 빛<光明>이요, 길<道>이요, 영원한 생명<不殺生>으로서 확철하게 밝힌 우리 스승 세존世尊이야말로 바로 그 모든 하늘과 천주天主의 아버지 부처 天任 님이시라, 이렇게 쓰고 불러야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 할 것이로다.

5.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불교佛敎界 사정은 과연 또 어떠한가? 대한불교, 한국불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통종단인 조계종마저 어찌된 영문인지 ○○불교 조계종, 조계종△△불교 등등 셀 수도 없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나, 언제부터인가 간혹 개<犬>도 미치지니 이제는 소<牛>까지 미쳐버리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았는가. 하기가 물론 자광조처연화총慈光照處蓮花出이요 해안관시육공慧眼觀時地獄空이라 이 또한 통화연통統和連動 되고 있는 영靈의 본체 법신法身 그 실상세계의는 하등 무언 무관한 일이라 잘라 말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한 사람의 구도사문求道紳門으로서 광명정대한 올바른 길을 몰라 방황하며 고통 받는 4생6도 뭇 생명들의 윤회輪廻가 못내 슬프고 안타까워 신음하듯 가슴 치며 내 뱃을 자책과 자탄의 하소연이다.

6.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비심大悲心을 대자심大慈心으로 이타자리利他自利 하기위해 바꾸어 말하자면, 이제부터라도 전 인류세계 불교도佛敎徒들은 일주문一柱門 그 불이문不二門을 마음속에 통화統和門으로 울곧게 세우고, 우리 스승 세존世尊께서 오로지 전하신 돈교법頓敎法을 시설施設하여, 모두가 여래장금如來藏金, 여래장광如來藏光, 여래장불如來藏佛임을 활연개요活然開悟케 하지는

뜻이다. ①불살생계의 올바른 뜻을 받아 지녀 ②숨 잘 쉬고 ③음식 잘 먹는 일, 도대체 이 밖에 따로 무슨 도도가 있고, 기도祈禱가 있으며 수행修行이 있더라 말인가.

### 第一戒제일계 不殺生불살생

※ 이 참뜻을 다시금 받아 지녀 금생今生에 요해了解하시어 심증心證 체달體達 하옵소서

自性之靈妙 常住法內在 斷滅見不起 是名不殺生 靈界無善惡 所以父天任

자성지영묘 상주법내재 단멸견불기 시명불살생 영계무선악 소이부천님

### 世尊應化 二五五二·九

統和佛敎 實參禪敎를 위해 떠도는 雲水納子 香月堂 慈明 합장배례 H·P 011-9752-1080